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사 서술 현황과 과제

윤 상 원*

1. 머리말
2. 연해주의병과 십삼도의군
3. 1910년대 연해주의 민족운동
4. 3·1운동
5. 대한국민의회와 임시정부 통합운동
6. 무장투쟁
7. 맺음말

1. 머리말

기록에서 확인되는 한인의 러시아 극동 연해주로의 최초 이주는 1863년이다. 즉 1863년 최운보(崔運步), 양응범(梁應範) 두 사람이 두만강을 건너 훈춘(琿春)을 경유하여 치신허(地新墟)에 와서 개간을 시작함으로써 최초의 이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¹⁾ 러시아측 자료에 따르

*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1) 뒤바보, 『俄領實記』, 『獨立新聞』, 1920. 3. 1면. 연해주 한인이주에 대한 기록은 1863년설과 1864년설이 있다. 그런데 연해주 한인사회는 1914년에 한인이주 50주년 기념식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려인사회에서는 공식적인 한인 이주를 1864년으로 잡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이주에 대해서는 李尙根, 『韓人 露領移住史 研究』, 탐구당, 1996; Б.Д. Пак, *Россия*

면 1863년 한인 13세대가 노브고로드(Новгород)만 연안의 포시예트 지역에 정착하고 관유지를 점유하여 개척하기 시작했다. 한인 이주는 해마다 증가하여 1869년에는 766가구로 늘어났다.²⁾ 이어 1860년대 후반에는 크고 작은 한인촌들이 연해주 도처에 성립되었다. 특히 1869년 한반도 북부지역에 밀어닥친 극심한 흉년은 농민들의 월경 이주를 더욱 촉진시키는 중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하여 1870년부터 니콜스크-우수리스크(蘇王嶺) 개척이 시작되었으며, 1871년에는 향카이호(興凱湖)를 돌아 하바롭스크를 거쳐 우수리강을 건너가 블라고슬로벤노예(四萬里) 마을이 개척되었다. 그리고 1874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 구개척리에 한인촌이 만들어졌다. 그밖에 흑정자, 녹둔도, 도비허, 남석동, 와봉, 수청 등지에도 주요 한인촌이 성립되었다.³⁾

러일전쟁 이후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러시아 극동 연해주로 망명하는 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와 아울러 러시아 극동 연해주는 한인 마을의 주민들을 기반으로 한 국외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연해주에서 한인 마을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 망명자들이 맺은 첫 결실은 1908년 연해주의병의 국내진공작전이었다. 이후 1910년대 민족운동과 3·1운동을 거쳐 통합임시정부 수립운동과 시베리아내전기 항일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극동 연해주는 중국령 서북간도와 함께 국외지역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줄기차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대표적인 장소였다.

그런데도 중국령 서북간도의 독립운동이 일찍부터 주목을 받으며

и Корея(러시아와 조선),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2001; А.И. Петров,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60-90е годы XIX века*(19세기 60-90년대 러시아 극동에서 한인 이주), Владивосток, 2000 참조.

2) В. Граве, *Китайцы, Корейцы, и Японцы в Приморье*(연해주의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 Хабаровск, 1912. 이 책은 1910년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의 명령에 따라 프리아무르주 총독 곤닷지의 주재로 진행된 프리아무르주지방 조사사업 보고서 중 11권이다.

3) 뒤바보, 『俄領實記』(2)(3), 『獨立新聞』, 1920. 3. 1, 4면; 3. 4, 3면.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데 비해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있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945년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한반도가 냉전(冷戰)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이었다. 더구나 연해주에 살던 한인들이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가볼 수 없는 땅, 연해주는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⁴⁾ 러시아 지역 연구의 부족은 곧바로 『국사』 교과서에 러시아 지역에 대한 서술이 빠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역사 연구자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없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었음을 뜻한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1990년 한소수교가 수립됨으로써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사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의 주요 도시와 중앙아시아에 소재한 문서보관소들에서 한인과 한국 관련 문서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새롭게 발굴된 러시아 문서를 이용하여 기존에 밝혀진 사실들을 확인하고, 왜곡된 사실들을 수정하며,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었다. 20여년에 걸쳐 축적된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사에 관한 연구 성과들은 교과서 내용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국정이었던 『국사』 교과서가 검정으로 바뀌고 난 후 새롭게 검정 교과서를 집필하는 필진들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이용하면서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들은 더욱 풍부해지고 실제 역사적 사실들에 가까운 서술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현재 고등학

4) 중국의 경우도 냉전시대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었지만, 간도에서 활동하다가 해방 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이들의 증언과 회고가 많이 남았으며, 만주국 시절을 거치면서 일제 당국이 생산한 많은 문서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도 한중수교 후 중국 측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 지역의 한인 독립운동 연구가 양으로나 질로나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중 러시아지역 독립운동사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할 때 참조하도록 하려는데 있다. 지금까지 역사학계와 역사교육학계에서 『한국사』 교과서 자체와 분야별 서술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⁵⁾ 하지만 아직까지 러시아지역 독립운동사의 내용을 특화시켜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에 필자는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⁶⁾에 서술되어 있는 러시아지역 독립운동사의 내용을 연해주의병, 1910년대 민족운동, 3·1운동, 대한국민의회와 임시정부 통합운동, 무장투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 『한국사』 교과서 자체를 분석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남한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구성과 그 특징 - 일제강점기 분야를 중심으로-」, 『歷史教育』 116집, 2012를 들 수 있다. 분야별 서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로는 최병택, 「일제 경제수탈 관련 교과서 내용에 대한 비판론의 대두와 교과서 서술상의 그 반영 방안」, 『歷史教育』 107집, 2007; 지수걸, 「‘2007년 개정 <역사> 교육과정’에 의거한 일제시기 민족운동사 서술방향과 방법」, 『역사와 역사교육』 16집, 2008; 박태균,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 분석」, 『歷史教育』, 116집, 2010; 한철호, 「한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서술 경향과 과제」, 『영토해양연구』, 2012 등을 들 수 있으며, 독립운동사에 관한 교과서 분석으로는 신주백, 「저항, 그리고 형상화와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을 들 수 있다.

6) 2010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을 통과한 후 2011년에 간행되어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다음 6종이다.(출판사 가나다순) 한철호 외 5인, 『고등학교 한국사』, (주)미래엔, 2011(이하 (주)미래엔); 최준채 외 4인, 『고등학교 한국사』, 법문사, 2011(이하 법문사); 도면희 외 6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1(이하 비상교육); 이인석 외 5인, 『고등학교 한국사』, (주)삼화출판사, 2011(이하 (주)삼화출판사); 정재정 외 4인, 『고등학교 한국사』, (주)지학사, 2011(이하 (주)지학사); 주진오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1(이하 천재교육).

2. 연해주의병과 십삼도의군

1904-1905년 러일전쟁은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동안 주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인의 이주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정치적 이유의 이주도 급증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망명자들의 증가는 러일전쟁 패배에 따른 러시아 전체의 반일 움직임과 더불어 연해주를 반일운동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하였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반일운동은 1908년부터 조직된 연해주의병의 국내진공작전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최재형(崔在亨)을 비롯한 연해주 한인사회의 중심적 인물들과 1906년 초 휘하의 충의대를 이끌고 연해주로 망명한 간도관리사 이범윤(李範允)을 중심으로 한 망명자들은 협력하여 1908년 연해주의병을 편성했던 것이다.

1905년 연해주 남부 안치해(煙秋)에서 결성된 동의회(同義會)⁷⁾를 기반으로 조직된 연해주의병의 국내진공작전은 1908년 7월에 전개되었다. 전제익(全濟益) 이하 안중근(安重根), 엄인섭(嚴仁燮) 등이 인솔하는 200-300명의 연해주의병이 두만강 대안에 대기해 있다가 7월 7일 강을 건너 경흥군 홍의동(洪儀洞)으로 진격해 들어간 것이 그 시작이었다.⁸⁾ 부대지휘는 전제익이 맡았고 안중근이 우영장, 엄인섭이 좌영장으로 각각 대원을 나누어 인솔하였다.⁹⁾ 이들은 초기 선제공격을 통해 홍의동전투와 신아산(新阿山)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회령까지 진격했다. 그러나 회령부근 영산(靈山)에서 일본군과 조우하여 패배하고 말았다.¹⁰⁾ 영산전투는 연해주의병이 국내로 진공한 이후 가장 남쪽까지 진격한 마지막 전투였다. 이후 연해주 의병은 차츰 안치해 등지로 귀환했

7) 「同義會趣旨書」, 『해조신문』 제63호, 1908. 5. 10.

8) 「慶興署長發 電報」, 『暴徒에 관한 編冊』, 1908. 7. 9.

9) 「강동순해」, 『한인신보』, 1917. 10. 7.

10) 「韓憲警 乙 第848號」, 『暴徒에 관한 編冊』, 1908. 7. 11; 「韓憲警 乙 第848號」, 『暴徒에 관한 編冊』, 1908. 7. 11; 「咸警秘收 第793-1號」, 『暴徒에 관한 編冊』, 1908. 7. 18.

으며, 국내진공작전은 일단 종료되었다.¹¹⁾

국내진공작전의 실패 이후 1910년을 전후해서 연해주의병 지도자들은 그동안 각기 독자적 의병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력의 분산을 가져와 효과적인 항전을 벌일 수 없었던 점에 공감하고 연해주와 북간도 일대의 의병을 단일군단으로 통합하여 작전과 지휘를 한 계통으로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구상은 항일의병전쟁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인석(柳麟錫)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그 노력은 1910년 6월 21일 십삼도의군(十三道義軍)의 편성으로 구현되었다.¹²⁾ 하지만 십삼도의군이 활동했던 기간은 매우 짧았다. 의군이 편성되어 활동을 개시하기도 전인 8월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삼도의군의 편성은 을미의병 이후 오랫동안 전개되어 온 항일의병의 결정체였다. 비록 십삼도의군은 국내진공작전 등과 같은 뚜렷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후 연해주 등지에서 펼쳐지는 국외 민족운동의 한 연원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즉,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후 자신은 ‘대한의군의 참모총장’이니 전쟁포로로 대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은 바로 그가 연해주의병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연해주의병은 러시아혁명

11) 박은식은 『안중근전』에서 이 영산전투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朴殷植, 『安重根傳』, <한국학연구>4(별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影印所收, 1922, 133쪽.

“이곳은 중국 러시아 영토의 대안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었고 방위 요충지였다. 지세가 좁고 험하며 民氣가 날래었다. 옛날 임란 때에 加藤清正이 이곳에 이르렀다가 의병에게 격파되었으므로 회령에는 7의사 대첩비가 있었다. 러일전쟁 때도 일인들이 의병의 습격으로 피해가 많았다. 그리하여 일인들은 이곳에 포대를 세우고 병영을 배치하였으며 그 수비가 엄밀하였다. 이때 우리 군사가 나타남을 보고 크게 놀라 급전으로 각지 주둔병을 불러 무려 5,000명이 풍우처럼 달려왔다. 포격이 매우 맹렬하였다. 안중근은 그 예봉을 정면으로 맞받아 만나질만에 많은 적병을 죽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후원이 없고 적의 기개는 날로 높아갔으며 날씨가 몹시 몹시 비가 내렸다. 전사들은 모두 굶주리고 피곤하였고 탄환마저 떨어져 붕괴되어 흩어졌다.”

12) 十三道義軍의 편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尹炳奭, 「十三道義軍의 編成」, 『사학연구』 36, 한국사학회, 1983 참조.

이후 시베리아내전기에 전개되었던 러시아 한인빨치산운동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내 학계에서 연해주의병에 대한 연구는 박민영에 의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대한제국기 의병운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연해주의병과 심삼도의군을 서술했다.¹³⁾

그러나 연해주의병과 심삼도의군의 역사적 중요성과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연해주의병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의병전쟁이 종결되고 난 후, 의병들이 간도와 연해주로 이동하여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다고만 서술할 뿐 연해주의병의 국내진공작전은 서술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이에 살아남은 의병들은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동하여 독립군으로 활동하였다”¹⁴⁾라든지 “이에 의병 부대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과 독립군 활동을 전개하였다”¹⁵⁾라고만 서술되어 있다. 다만 삼화출판사 간행 교과서에서 “해산 군인이 의병에 합류함으로써 의병의 조직과 화력이 한층 강화되었고, 활동 영역도 국내뿐 아니라 간도와 연해주 지역 등 국외로까지 확대되었다”¹⁶⁾고 하여 연해주의병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시사할 뿐이다.

한편, 안중근의 의거를 설명하며 연해주의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도 있다. 즉 비상교육 간행 교과서는 “안중근은 연해주와 두만강 일대에서 의병 투쟁을 전개하다가”¹⁷⁾라고 하여 안중근과 연해주의병을 연결시키고 있다. (주)미래엔 간행 교과서에는 이 상황이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연해주에서 의병을 이끌고 활약하던 안중근은 침략의 원흉인 이토

13) 박민영, 『大韓帝國期 義兵研究』, 한울아카데미, 1998 중 제3부 「러시아 沿海州地域의 義兵」 참조.

14) 비상교육, 195쪽.

15) (주)지학사, 168쪽.

16) (주)삼화출판사, 192쪽.

17) 비상교육, 196쪽.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처단하였다(1909). 그는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 전쟁의 일환으로 이토를 죽였기 때문에 형사범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대우해 줄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였다.¹⁸⁾

안중근 의거를 통해 연해주의병을 시사하는 두 교과서의 서술이 참신하기는 하지만, 연해주의병 자체가 설명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서술은 자칫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미년 의병전쟁을 설명하며 연해주의병의 국내진공작전과 십삼도의군의 편성이 함께 서술될 때 위 안중근 의거의 설명이 훨씬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1910년대 연해주의 민족운동

연해주의병의 국내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일제가 한반도를 무력으로 강점하게 되자 연해주 한인들은 직접적인 무력투쟁보다는 민족운동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 결과 러시아지역에는 1910년 8월 23일 조직된 성명회(聲名會)를 비롯하여 1911년 5월 20일에는 권업회(勸業會)가, 그리고 1911년 10월 20일에는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가 조직되었다. 이 한인 민족운동단체들은 주로 교육과 언론활동을 통해 연해주와 시베리아지역 한인들에게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업을 장려하여 한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하였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新韓村)에서 조직된 권업회는 한인들이 러시아에서 러시아 당국의 공식인가를 받은 최초의 단체였다. 연해주에 거주하던 한인 지도자들을 총망라하여 조직된 권업회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한인의 실업을 권장하고 한인의 직업과 일터를 알선하고 교육을 보급하는 것을 중지로 삼았다. 그러나 권업회는 처음부터 항일 독립운동기관으로 조직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그 會名을 勸業이라

18) (주)미래엔, 182쪽.

함은 倭仇의 交涉上 妨害를 避하기 爲함이오 實際 內容은 光復事業에 大機關으로 된 것이다”¹⁹⁾라는 계봉우의 글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계봉우는 권업회를 인가해준 당시 연해주총독 곤닷지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다.²⁰⁾ 권업회는 자신의 기관지로 『권업신문』을 간행하여 연해주 한인의 항일민족의식 고취와 실력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신한촌에 있던 계동학교를 확대 개편하여 대규모의 한민학교(韓民學校)로 확장하여 연해주 한인들의 교육에도 진력하였다. 또한 연설회, 연예회, 기념회, 추도회 등의 각종 집회를 통하여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안중근의사 추도기념일과 국치기념일에는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배일사상 고취에 진력하였다.²¹⁾

이러한 실업과 교육운동의 이면에서 권업회는 독립운동을 주도할 중추기관으로 1914년 대한광복군정부(大韓光復軍政府)를 건립하였다. 권업회의 대한광복군정부 건립에 대해 계봉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紀元 四二四七年 甲寅에 至하여 俄國 京城으로부터 各 地方을 通하여 俄日戰爭 十年紀念會된 結果로 復讐熱이 極頂에 達하여 다시 開戰될 兆朕이 非朝則夕에 在하매 李相설, 李東輝, 李東寧, 李鍾浩, 鄭在寬 諸氏의 主謀로 俄中 兩領에 散在한 同志를 大網羅하여 大韓光復軍政府를 組織하고 正都領을 選舉하여써 軍務를 統轄케 하니 첫재는 李相설氏오 그 다음은 李東輝氏가 되어야했다. 軍隊를 祕密裏에서 編成하고 中領羅子溝에는 士官學校까지 設하였으며 또 우리 民族의 俄領移住한 五十年紀念大會를 장차 開하고 그 時機를 利用하여 軍資金을 收聚하기로 하여 俄官에게 그 紀念許可까지 得하였는데²²⁾

즉, 러일전쟁 10주년을 기화로 러시아에 반일감정이 팽배해짐에 따라 이를 이용해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였으며, 비밀리에 군대를 편성하고 간도 나자거우(羅子溝)에는 사관학교까지 설립하였다는 것이

19) 뒤바보, 「俄領實記」(9), 『獨立新聞』, 1920. 3. 30, 1면.

20) 위와 같음.

21) 「國恥無忘日」, 『권업신문』, 1913. 8. 29, 1면.

22) 뒤바보, 「俄領實記」(9), 『獨立新聞』, 1920. 3. 30, 1면.

다.²³⁾ 그리고 마침 1914년이 한인의 러시아 이주 50주년이었으므로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군자금을 모을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국인 일본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러시아정부는 이주 50주년 기념행사를 불허했을 뿐 아니라, 권업회와 대한광복군정부를 해산시키고 권업신문도 정간시키고 말았다. 이후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연해주 한인의 민족운동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그동안 위축되었던 한인의 민족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인들의 자치기관으로 ‘전로한족회 중앙총회’가 창립되었고, 하바롭스크에서는 최초의 한인 사회주의정당인 ‘한인사회당’이 창립되었다.²⁴⁾ 이후 전로한족회 중앙총회는 1919년 2월 25일 제2차 대회를 소집하여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로 확대 개편되었다.²⁵⁾

이상 1910년대 연해주 한인의 민족운동은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윤병석의 선구적 연구²⁶⁾를 필두로 박환, 반병률, 임경석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 사실이 밝혀지고,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었다.²⁷⁾

그동안의 많은 연구 성과를 반영하듯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1910년대 연해주 민족운동은 분량과 내용면에서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권업회와 대한광복군정부를 중심으로 1910년대 연해주 민족운동을 서술하고 있다. (주)삼화출판사 간행 교과서의 내용인

23) 계봉우의 위 「俄領實記」 기사를 근거로 대한광복군정부의 정통령이 이상설, 부통령이 이동휘였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다음’이 의미하는 것이 직위가 아니라, 순서이기 때문에 이상설이 1대 정통령, 이동휘가 2대 정통령이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24) 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념준비위원회 편찬,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고려 민족』, 해삼위도서주식회사, 1927, 46쪽.

25) 뒤바보, 「俄領實記」(12), 『獨立新聞』, 1920. 4. 8, 3면.

26) 윤병석, 「1910년대 연해주지방에서의 한국독립운동」,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27)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러시아 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교문사, 1994.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이동휘 등이 권업회를 조직하고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²⁸⁾처럼 간략한 서술이 있는가 하면, (주)미래엔 간행 교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아주 자세하다.

이미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이 건설되었다(1911). 신한촌에는 자치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되어 민족의 권익 신장에 노력하면서 독립운동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권업회는 러일전쟁 10주년을 맞아 러시아인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자 효과적인 독립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이상설,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 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였다(1914). 그러나 일제와의 관계 악화를 꺼린 러시아가 독립군의 무장 활동을 탄압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은 어려웠다.²⁹⁾

러시아혁명 이후 한인 민족운동의 동향에 대해서도 비상교육과 (주)삼화출판사 간행 교과서를 제외한 4권에서는 비교적 정확히 다루고 있다. 이 부분도 법문사처럼 간략하게 소개³⁰⁾하는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천재교육처럼 길고 자세히 서술³¹⁾하는 교과서도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하고 자세한 교과서 서술을 위해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8) (주)삼화출판사, 229쪽.

29) (주)미래엔, 182쪽.

30)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은 러시아 혁명 이후 활기를 띠어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를 결성하였다가, 1919년에 대한 국민 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법문사, 236쪽.

31) “이 지역의 독립운동은 러시아 정부의 탄압으로 한때 주춤하였으나 러시아 혁명 이후 다시 활기를 띠어 1918년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하바롭스크에서는 한국인 민족주의자들과 러시아에 귀화한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모여 한인 사회당을 결성하였으며, 위원장에 이동휘를 선출하였다.”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 - 1917년 러시아 내의 정세 변화를 틈타 민족 자결을 주장하고 러시아 내 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1919년 대한 국민 의회로 개편되었다.” 천재교육, 203쪽.

4. 3·1운동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독립만세 시위는 1년여에 걸쳐 연인원 200만여 명이 참가한 전 민족적, 전 민중적 봉기였다. 더구나 3·1 만세시위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한인이 거주하는 세계 전 지역에서 일어났다 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던 한인들도 역시 국내의 3·1운동에 호응하여 각지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연해주 3·1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바로 직전인 2월 25일 전로한족중앙총회를 확대 개편하여 조직된 대한국민의회였다. 연해주에 국내의 시위소식이 전해진 것은 3월 8일이었다. 육로를 통해 러시아로 들어와 포시예트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온 1,000여 명의 동포들이 국내에서 독립선언서가 반포된 사실을 알렸던 것이다. 김하구는 신한촌 한민학교에서 개최된 기독교청년회 집회에서 국내의 시위 소식을 알린 후 한국 독립을 선언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만세를 외쳤다. 이후 한인사회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어 친일분자들에 대한 위협과 공격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11일에는 신한촌 한민학교에서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들이 모여 독립을 선언할 것이라는 풍문이 돌아 삼일여학교 학생들은 태극기를 제작하기도 하였다.³²⁾

원래 대한국민의회는 러시아 당국의 공식적인 허가를 얻어 3월 15일에 독립선언서 발표와 가두시위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영사관의 요청을 받은 러시아 당국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한국민의회와 블라디보스토크 한민회에 대한 폐쇄령을 내림으로써 성사되지 못했다.³³⁾ 결국 대한국민의회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3월 17일 니콜스크-우

32) 『機密 第38號, 韓國獨立運動二關スル件』, 1919. 3.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kuksa.nhcc.go.kr/> / 日本外務省 編綴文書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北利亞』(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kuksa.nhcc.go.kr/>, 이하 『在西北利亞』) 7권, 149항.

33) 『機密 第43號, 韓國獨立運動二關スル件』, 1919. 3. 18, 『在西北利亞』 7권, 153항.

수리스크에서 회장 문창범, 부회장 김철훈, 서기 오창환의 명의로 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³⁴⁾ 이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영사관을 비롯하여 각국 영사관과 러시아 관공서에 독립선언서를 배부하였다. 다음날인 3월 18일에는 한인 노동자들이 대한국민의회의 명령에 따라 총파업을 단행하고 신한촌에 집결하였다.³⁵⁾ 뒤이어 스파스크, 라즈돌리노예, 하바롭스크, 안치헤 등지에서도 연이어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³⁶⁾

한편 대한국민의회는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만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무장투쟁 계획은 뒤에 살펴볼 ‘에호한인부대’의 조직으로 이어졌고, 외교활동은 파리강화회의에 고창일과 윤해를 대표로 파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연해주의 3·1운동에 대해서는 국외지역 3·1운동 연구의 일환으로 일찍부터 연구가 이루어졌다.³⁷⁾ 이후 러시아 지역 민족운동 연구의 일환으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 러시아 지역 3·1운동은 그 내용이 많이 밝혀져 있다고 할 수 있다.³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러시아 지역 3·1운동 서술은 국외 지역 3·1운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³⁹⁾ 그중

34) 「三月十七日浦潮新韓村に於ける獨立運動集會宣言書」(姜德相, 『現代史資料』 26卷, 42-45쪽)

35) 「機密 第43號, 韓國獨立運動二關スル件」, 1919. 3. 18, 『在西比利亞』 7권, 153항.

36) 「機密 第43號, 尼市及‘스바스카’鮮人獨立運動二關スル件」, 1919. 3. 18, 『在西比利亞』 7권, 152항.

3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 제3권, 1971, 779-785쪽.

38) 박환, 「大韓國民議會와 沿海州地域 3·1運動의 展開」, 『汕耘史學』 제9집, 2000; 반병률, 「제2부 노령에서 3·1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1 : 국외 3·1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47-296쪽.

39) 예를 들어 (주)지학사 간행 교과서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 원산, 의주 등지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그리고 미주 지역으

에서 천재교육 간행 교과서에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도 3월 17일 한인들이 만세 행진을 하였다”고 하여 연해주 3·1운동을 따로 서술하고 있다.⁴⁰⁾

3·1운동은 워낙 그 규모가 방대하고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국외지역 3·1운동을 따로 할애하여 서술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단순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외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에 대한 의미 평가마저 없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5. 대한국민의회와 임시정부 통합운동

앞에서 설명했듯이 러시아혁명 이후 러시아 한인들의 자치기관으로 성립된 전로한족중앙총회는 1919년 2월 25일 대한국민의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전로한족총회가 러시아 한인의 중앙기관이었다면, 대한국민의회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령 간도와 훈춘 지방의 대표들까지 참석하여 그 대표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는 회장 문창범, 부회장 김철훈, 서기 오창환의 명의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그 성립을 대외적으로 선포하였다. 대한국민의회는 3·1운동 이후 국내 외에서 생겨난 여러 임시정부들 중 가장 먼저 조직된 기관이었다. 대한국민의회는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윤해와 고창일을 파견하는 한편 연해주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지도하였으며, 연해주와 간도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대한국민의회는 무장투쟁 준비는 중동철도선을 장악하고 있던 호르바트 군대 내의 조선국민대대를 이용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즉 대한국민의회 군무부장 대리를 맡은 김하석은 호르바트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3,000명의 한인청년들을 중동철도 연선지역에 주둔한 중동철도수비

로 확산되었다”라고 하여 국외지역 3·1운동을 한꺼번에 서술하고 있다. (주 지학사, 197쪽.

40) 천재교육, 210쪽.

대에 편입시키고자 했다. 여기에서 한인청년들에게 군사경험과 무장을 갖추도록 한 후 국내로 진출시켜 항일무장투쟁의 주력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⁴¹⁾ 그리하여 기존 연해주로부터 온 한인청년들 외에 간도와 국내로부터 많은 한인청년들이 하얼빈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조선국민대대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미하일 원(元)은 자신의 부대가 한인민족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⁴²⁾ 따라서 국민의회와 연결을 가지고 한인민족운동에 관심을 가진 포트르 김 중위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미하일 원의 부대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하얼빈의 동남쪽에 위치한 액하(掖河, Эхо)에 한인부대를 편성했다. 이 부대의 정식명칭은 불분명하다. 당시 사람들은 掖河의 러시아어 표기인 Эхо(이는 掖河의 중국어 발음인 예허를 러시아어로 표기한 것이다.)를 우리말 발음대로 읽어 ‘에호부대’ 또는 ‘에호군대’라고 불렀다.⁴³⁾ 그러나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던 백군의 도움을 받아 항일부대를 조직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대한국민의회는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아 소비에트 식으로 조직되었다.⁴⁴⁾ 때문에 의회의 기능 뿐 아니라 행정부의 기능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그해 4월에 조직된 상해임시정부가 행정부로서의 임정과 의회로서의 임시의정원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조직상의 차이가 이후 통합 과정에서 ‘승인·개조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3·1운동 이후 4월 상해에서 중국 관내와 간도지역 그리고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하였다. 이에 대한국민의와 상해임정의 통합문제가 대두되었다. 대한국민의회에서는 5월 원세

41) 이동휘, 「쓰쁘랍까」, 『선봉』, 1929. 12. 17; 김하석, 「리동휘 동무의 쓰쁘랍까를 부인한다」, 『선봉』, 1930. 2. 8.

42) 미하일 원은 평안도에서 온 3명이 조선독립을 위해 입대하기를 지원했는데, 본대의 목적은 순러시아인으로서의 조선인의 민족자결주의를 희망하고 있을 뿐 감히 구한국의 독립을 염원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朝憲機 第114號, 朝鮮人獨立大隊二關スル件』, 1919. 3. 1, 『在西比利亞部』 7권, 109항.

43) 김하석, 「리동휘 동무의 쓰쁘랍까를 부인한다」, 『선봉』, 1930. 2. 8.

44) 뒤바보, 「俄領實記」(10), 『獨立新聞』, 1920. 4. 1, 1면.

훈을 상해로 파견하여 임정과 통합교섭을 하였다. 이후 상해임정에서는 현순과 김성겸을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하여 통합협상을 계속하였다. 몇 개월에 걸친 통합논의 끝에 대한국민의회는 “한국 내지에서 발표한 정부(한성정부)를 봉대하고 쌍방이 다같이 취소한다”는 조건 하에 8월 20일 해산을 결의했다.⁴⁵⁾ 그리고 통합정부의 국무총리와 교통총장으로 임명된 이동휘와 문창범은 상해로 떠났다.

그러나 이들이 상해에서 맞닥뜨린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었다. 자신들은 대한국민의회를 해산하고 왔지만, 상해에서는 행정부인 내각은 해산하였으나 입법부인 임시의정원은 해산하지 않았다. 즉, 상해임정의 조치는 의정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각의 각원을 한성정부의 각원으로 바꾸는 것에 그친 것이었다. 상해 임정의 이러한 ‘개조’ 조치에 대해 이동휘와 문창범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들은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통합되어 있는 대한국민의회가 해산했으니, 상해에서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모두 해산하고 한성정부를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른바 ‘승인·개조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이동휘는 임시정부의 개조를 인정하고 통합정부의 국무총리에 취임했지만, 문창범은 통합정부에 참여를 거부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후 대한국민의회는 1920년 2월 15일 복설(復設)을 선언하고 재건되었다.⁴⁶⁾

대한국민의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의 과정에서 일찍부터 주목 받아왔다.⁴⁷⁾ 하지만 그때까지 임시정부 수립과정에서 상해 임정의 통합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대한국민의회를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분석한 것은 반병률의 연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이후 러시

45) 「大韓國民議會宣言文」(1920. 2. 15)姜德相, 『現代史資料』 27卷, 13-14쪽

46) 위의 선언문.

47)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3권, 探求堂, 1967, 4-6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 제4권, 1972, 184-192쪽.

48) 반병률, 「大韓國民議會의 성립과 조직」, 『韓國學報』 제46집, 1987; 「大韓國民議會와 上海臨時政府의 統合政府 수립운동」, 『한민족운동사연구』 제2집, 1988.

아 지역 민족운동사와 사회주의운동사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은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대한국민의회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술들은 새로이 규명된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대부분 사실과 어긋나는 잘못된 서술로 일관되고 있다. 아마 교과서에서 가장 오류가 많은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오류의 내용을 하나씩 점검해보도록 하자.

첫째, 모든 교과서들이 대한국민의회의 조직 시기를 1919년 3월로 기록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한국민의회는 기존의 전로한족중앙총회를 확대 개편하여 1919년 2월 25일에 조직되었다. 물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대외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은 3월 17일이지만 정확한 조직 시기는 3·1운동 이전이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교육에서 간행한 교과서는 “3·1운동 이전부터 임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라고 하여 어느 정도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지만 곧바로 “1919년 3월 연해주에서 조직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⁴⁹⁾ 천재교육 간행 교과서는 본문에서 “연해주에서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의를 열어 대한 국민 의회로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였지만, 바로 밑 지도에서는 역시 1919년 3월에 대한국민의회가 조직된 것으로 적고 있다.⁵⁰⁾

둘째, 무엇보다 큰 오류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대한국민의회가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조직이라고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상교육, 법문사, (주)삼화출판사, (주)미래엔에서 간행한 4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모두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 국민 의회”라고 적고 있으며, 천재교육 간행 교과서 역시 “3.1운동 이후 각료 명단을 발표하고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⁵¹⁾고 하여 위 교과서들과 동일한 의

49) 비상교육, 238쪽.

50) 천재교육, 234쪽.

51) 위와 같음.

미의 서술을 하고 있다.

이는 근래 대한국민의회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나오기 전까지의 대한국민의회 인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다. 이 전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1919년 2월 중에 전로한족회 중앙총회를 대한국민의회로 개편하고 의장에 문창범, 부의장 김철훈을 선임하였으며, 3월 21일 회의에서 5개조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행정부의 임원을 선출하여 발표했는데, 그 행정부의 대통령이 손병희이고 부통령은 박영효, 국무총리는 이승만이 선임되었다는 것이다.⁵²⁾ 즉 대한국민의회의 정부, 즉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 손병희이고, 의회 의장은 문창범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한국민의회가 소비에트식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생긴 착오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대한국민의회는 상해의 임시정부와는 달리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되는 행정부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한국민의회에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25년 전에 반병률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주장된 이래 학계에서는 통설로 인정받고 있다.⁵³⁾ 이후 대한국민의회를 언급하는 어떤 연구에서도 ‘대통령 손병희’라는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추후 교과서를 새로 검정 받을 때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몇몇 교과서에는 상해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 사이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통합을 가로막은 가장 큰 문제가 ‘통합정부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임시 정부를 무장 독립 투쟁을 지도하는 데 유리한 연해주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안전하고 외교 활동에 유리한 상하이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기도 하였다”⁵⁴⁾라든지 “통합운동은 임시 정부의 위치 문제로 진통을 겪었으

5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 제4권, 1972, 184-192쪽.

53) 반병률, 「大韓國民議會의 성립과 조직」, 『韓國學報』 제46집, 1987, 157-167쪽, (3) 임시정부조직설에 대한 검토.

나”⁵⁵⁾라는 서술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통합정부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였다. 또한 이 문제는 통합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에도 임정 내부와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 논쟁이 계속되는 주제였다.⁵⁶⁾ 그러나 통합 논의 과정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일단락되었다.

통합에 걸림돌이 되었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승인·개조 논쟁’이었다. 즉 상해 임정이 의정원은 해산시키지 않고 정부의 각료만 한성정부의 각료로 바꾸는 ‘개조’를 취했던데 대해 대한국민의회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모두를 해산하고 한성정부를 ‘승인’하자고 맞섰던 것이다. 통합과정에서 정작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승인·개조 논쟁’이었으며, 이동휘가 통합정부에 참여했던데 반해 문창범 등이 통합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감으로써 해외, 국내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을 결집시켜 완전한 통합에 이르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즉 1919년 9월에 만들어진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불완전한 통합체였던 것이다.

넷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해 임시정부 사이의 통합에 대한 서술은 마치 대한국민의회가 상해 임시정부에 흡수된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 (주)삼화출판사 간행 교과서의 경우에는 “민족 지도자들은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 정부를 계승하고 대한 국민 의회를 흡수하여 상하이에 통합 정부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⁵⁷⁾고 하여 아예 통합이 아닌 흡수로 서술하고 있다. 법문사 간행 교과서 역시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하이로 하되, 한성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동휘 등 대한 국민 의회의 세력이 합류하기로 하였다”⁵⁸⁾라고 하여

54) 비상교육, 238쪽.

55) 법문사, 230쪽.

56) 김철수, 「본대로, 드른대로, 생각난대로, 지어만든대로」, 『遲軒 金鋳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999, 10쪽.

57) (주)삼화출판사, 234쪽.

58) 법문사, 230쪽.

읽기에 따라 흡수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통합이라고 서술한 교과서 역시 상해 임정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다. “임시 정부는 연해주의 대한 국민 의회와 통합하여 새 의정원을 구성하고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며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통합 정부를 출범시켰다”라고 서술한 (주)지학사 간행 교과서나, “상하이 임시 정부와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 국민 의회는 양측의 내각을 해산하고 한성 정부의 내각안을 받아들여 집정관 총재의 명칭을 대통령으로 바꾸기로 하였다”라고 서술한 천재교육 간행 교과서는 모두 ‘개조’의 입장에서 통합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 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불협화음과 갈등을 정확히 서술하지 못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입장에서 통합을 서술하는 것은 여전히 올바른 역사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그에 비해 (주)미래엔 간행 교과서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통합 운동 과정에서 생긴 갈등은 서술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통합을 공정한 입장에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임시 정부는 곧바로 통합운동을 시작하여, 한성 정부의 범통을 계승하고, 상하이의 임시 정부와 대한 국민 의회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탄생하였다(상하이, 1919.9.). 임시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국무 총리에는 이동휘가 선임되었다.⁵⁹⁾

그렇다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정부 수립운동에 대한 서술에서 이렇듯 많은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대한국민의회 조직 시기를 잘못 적고 있는 이유는 교과서 집필진들이 아직도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임시정부를 조직하기 시작했다”는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과서들은 3·1운동의 의의를 서술하면서 하나같이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갈 통

59) (주)미래엔, 238쪽.

일된 지도기관에 대한 공감대가 생겨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적고 있다.

물론 3·1운동의 경험이 통일된 지도기관의 부재가 낳는 어려움을 공감하게 했고, 임시정부 통합운동을 촉진시킨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3·1운동 때문에 임시정부가 조직되기 시작했다는 단선적 인식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임시정부 또는 혁명정당의 수립은 3·1운동 이전부터 국외지역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선후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2월에 조직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며, 또한 3·1운동 당시 연해주 지역의 만세시위를 대한국민의회가 주도해 나갔던 사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교과서 집필진들이 여전히 ‘법통론적 역사인식’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이어 받아”라고 하여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1919년 9월 대한국민의회와 통합하여 만들어진 통합정부가 아니고 4월 13일에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⁶⁰⁾ 때문에 우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아주 오랫동안 ‘법통론적 역사인식’으로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민족해방투쟁의 역사를 바라봐 왔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는 맹목적 반공주의에서 벗어나 역사인식의 틀을 많이 확장시켜 왔다. 이 때문에 검정 교과서 속에는 법통론적 역사인식을 넘어서는 역사서술이 많이 포함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과서는 ‘임시정부 절대주의’에서 벗어나 중국에서 활동

60) 현재 공식적인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1919년 4월 10일 의정원의 의결에 의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4월 13일이다.

하던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 중 하나로 위상이 떨어진 1920년대 중반 이후 임시정부의 실상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 그대로 서술할 뿐 아니라, 임시정부에 반대하거나 심지어는 적대적이었던 독립운동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사실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정부 자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임시정부 절대주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법통론적 역사인식’이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않지만, 그 때문에 다른 독립운동의 역사가 사실과 다르게 서술될 때에는 자칫 역사왜곡으로 흐를 수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까지 보지 못하게 하는 ‘법통론적 역사인식’이라면 다시 한 번 숙고하여 경계해야 할 것이다.

6. 무장투쟁

러시아혁명 이후 연해주 지역은 간도 지역과 함께 무장독립투쟁의 중심지였다. 연해주 지역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러시아혁명 이후 벌어진 내전에 일본군이 백군을 지원하는 제국주의간섭군으로 시베리아에 출병하면서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한인들은 항일 빨치산부대를 조직하여 소비에트 적군 및 러시아 빨치산부대들과 함께 백군 및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러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최초의 한인 부대는 1918년 4월 하바롭스크에서 조직된 한인사회당의 군사부에서 조직한 한인사회당 적위군이였다. 한인사회당은 군사부장 유동렬의 주관 아래 무장부대 편성사업을 전개하여 1918년 6월 말 서간도에서 온 50-60명과 다반 등 하바롭스크 인근에서 모집한 한인청년 등 100여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진 한인사회당 적위군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한인사회당 적위군은 1918년 9월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백군이 하바롭스크를 공격하였을 때 이에 맞서 소비에트적군과 함께 하바롭스크를 방어하는 전투에 참가했다. 그러나

적군은 처참히 패배하고 한인사회당 적위군도 거의 절반 이상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음으로써 해산되고 말았다.⁶¹⁾

이후 러시아 지역에는 많은 한인 빨치산 부대들이 조직되었다. 러시아의 유명한 빨치산부대인 트라피친 부대와 함께 일본군과 백군이 점령하고 있던 니콜라에프스크-나-아무레를 회복하는 전투에 참가했던 니항부대, 지금은 빨치산스크시로 불리는 수찬 지방에서 활동하던 한창걸의 수찬군대, 북간도와 연해주를 넘나들며 무장투쟁을 벌이던 신민단 그리고 수이푼 지방의 혈성단과 솔밭관공산당부대 등은 당시 명성이 자자하던 유력한 한인 부대들이었다.

1921년 12월에는 이만에 있던 연해주 대한의용군 2중대가 이만역을 점령하려는 백군과 일본군에 맞서 최후의 1인까지 분전하다 50여 명의 중대원 중 단 3명을 제외하고 한운용 중대장 이하 전원이 전사하기도 했다. 당시 백군 및 일본군은 600여 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후세 역사가는 이 전투를 일컬어 “소비에트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극동지역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의 역사에서 위대하고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차지한”⁶²⁾ 전투였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그해 11월에는 올가항에 일본군이 상륙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구원하러 간 신용걸 중대가 올가항전투에서 일본군과 백군 몰아내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대장 신용걸 이하 한인 빨치산 22명이 전사했다. 이후 이만(지금의 달네레첸스크시)과 올가에는 당시의 전투에서 전사한 한인 빨치산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다.⁶³⁾

이렇듯 러시아지역에서 한인들의 무장투쟁은 기간과 투쟁의 강도를

61) 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념준비위원회 편찬,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고려 민족』, 해삼위도서주식회사, 1927, 47쪽.

62) Цой -Хорим, *Корейское партизанское движение в годы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в ДВК*(최호림, 「내전 시기 극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на ДВ. 1932г. 228листов)*, ГАХК Ф.П-44, оп.1, дело 599, с.165.

63) 연해주에서 한인의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 무장투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참조.

볼 때 간도 지역 독립군 부대들의 활약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에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등 간도 지역 독립군 부대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으나 러시아 지역의 항일 빨치산투쟁에 대해서는 서술이 없다. 즉, “무장 독립군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곳은 만주와 연해주였다”⁶⁴⁾라거나 “3·1운동 이후 무장 독립 투쟁은 주로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전개되었으나”⁶⁵⁾라고 하며 연해주에서 무장독립투쟁이 벌어졌다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 대한 서술은 없는 것이다. 다만 천재교육에서 간행한 교과서에서는 무장독립투쟁의 항목이 아닌 ‘연해주 이주동포의 생활’에 대한 항목에서 “러시아 혁명 이후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혁명군과 반혁명군의 내전이 벌어졌고, 일본군은 반혁명군을 지원하였다. 이에 한인들은 유격 부대를 조직하여 혁명군과 함께 활약하여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1922년 말 혁명군이 내전에서 승리하여 시베리아 전 지역이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그동안 연해주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철수하였다”⁶⁶⁾라고 러시아 한인들의 무장투쟁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교과서에 연해주 지역 무장독립투쟁의 내용이 자세히 서술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가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등 간도 지역 독립군 부대들의 항일 투쟁이 오래전부터 학계의 관심을 끌며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던데 비해 연해주 지역의 무장투쟁이 학계의 관심주제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최근에 연해주 지역 무장투쟁에 관한 박사논문이 나오고,⁶⁷⁾ 광복 6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에서 간도와 연해주 지역의 무장투쟁을 한 시야에서 저술한 연구서⁶⁸⁾가 나오기는 했지만 세세한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을

64) 비상교육, 241쪽.

65) 법문사, 237쪽.

66) 천재교육, 234쪽.

67)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만큼 학계의 공인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러시아 지역 항일무장투쟁이 독립운동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7. 맺음말

러일전쟁 이후 조선의 지사들이 러시아 극동 연해주로 망명을 하면서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연해주는 중국령 서북간도와 함께 국외지역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즐기차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대표적인 장소였다.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기반은 1860년대부터 이주한 한인들이 조성한 한인 마을들이었다. 한인 마을들을 기반으로 연해주의 독립운동가들은 연해주의병의 국내진공작전부터 시작하여 1910년대 민족운동과 3·1운동을 거쳐 임시정부 수립과 통합운동과 시베리아내전기 항일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극동 연해주는 중국령 서북간도와 함께 국외지역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즐기차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대표적인 장소였다. 그런데 냉전체제 아래에서 러시아 연해주는 중국령 서북간도에 비해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러시아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의 부족은 곧바로 『국사』 교과서 서술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근래 들어 러시아 문서보관소 자료들을 이용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사』 교과서에도 러시아지역 독립운동사의 내용이 서술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1908년에 전개된 연해주의병의 국내진공작전과 십삼도의군의 편성에 대해서는 근래에 들어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거의 서술되지 않고 있다. 단지 국내에서 의병전쟁이 종결되고 난 후, 의병들이 간도와 연해주로 이동하여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다고만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68) 반병률,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49 :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그리고 안중근의 의거를 설명하며 간접적으로 연해주에서 의병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서술이 있을 뿐이다. 연해주의병의 국내 진공작전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뿐더러 안중근이 재판에서 자신을 “대한의군의 참모중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데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서술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1910년대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성명회, 권업회, 대한민국 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 대한광복군정부 등 민족운동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까닭에 이를 기반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권업회와 대한광복군정부를 중심으로 1910년대 연해주 민족운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연해주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의 양상에 대해서도 간략하나마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하고 자세한 교과서 서술을 위해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다.

1919년 3월 17일 니콜스크-우수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시작으로 연해주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언급하는데서 그치고 있다. 3·1운동이 워낙 그 규모가 방대하고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국외지역 3·1운동을 따로 할애하여 서술하기는 힘들다. 다만 단순 서술에만 그치고 국외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에 대한 의미 평가마저 없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러시아혁명 이후 결성된 전로한족중앙총회가 확대 개편되어 조직된 대한국민의회와 대한국민의회가 통합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상해 임시정부와 별인 통합운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중 가장 오류가 많고 심지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서술까지 나타난다. 대한국민의회의 조직 시기를 1919년 2월이 아닌 3월로 서술하고 있는 점, 대한국민의회가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조직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점, 임시

정부 통합운동의 과정에서 ‘승인·개조 논쟁’을 빼버림으로써 마치 대한국민의회가 상해 임시정부에 흡수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점 등이 역사적 사실을 잘못 서술하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이렇듯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이 대한국민의회와 통합정부 수립운동에 대해 잘못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관습적으로 습득해 왔던 역사인식에서 기인한다.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임시정부를 조직하기 시작했다”는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국민의회는 3·1운동 이후에 조직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교과서 집필진들이 여전히 ‘법통론적 역사인식’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법통론적 역사인식’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인식이 다른 독립운동의 역사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통합정부 수립운동에 대한 잘못된 서술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혁명 이후 벌어진 내전에 일본군이 백군을 지원하는 제국주의간섭군으로 시베리아에 출병하면서 시작된 러시아지역 한인들의 항일무장투쟁은 연해주 지역이 간도와 함께 무장독립투쟁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단지 무장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진 곳이 간도와 연해주라고만 언급할 뿐 간도의 독립군 투쟁이 충분히 서술된 것에 반해 연해주의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서술이 없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가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러시아지역 한인들의 무장투쟁에 관한 연구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교과서에 기재할 만큼 충분한 논의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보다는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러시아 지역 항일무장투쟁이 독립운동사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러시아지역 독립운동사의 내용이 충분히 서술된 부분도 있고, 서술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잘못 서술된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지역 독립운동사는 그

기간과 활동내용에 비해 서술이 무척 소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물론 많은 부분에서 집필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에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적 사실이 서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의 깊이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 연구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교과서 집필진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섭렵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에 교과서를 서술한다면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들을 정확히 이해시킬 수 있고 나아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Analysis the content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Russia in the highschool textbooks 『Korean History』

Yun, Sang-W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Russia, which were described in the highschool textbooks 『Korean History』. Textbooks 『Korean History』 published in Korea are six species. The content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Russia contained here can be classified as follows: Ŭbyoung in Maritime Province, National movement in the 1910s, 3·1 movement, Korea National Assembly and coalition movement of provisional governments, armed struggles, etc.

After the Russo-Japanese War, many Korean independent activists fled to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s. From this time until the 1920s It was the place where fierce independence movement developed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s and Kando in China. However under the Cold War,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s studie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Russia did not progress as compared to Kando. In recent years, as new research is done, the content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Russia in the textbooks began to be described.

In the current highschool textbooks 『Korean history』, there are many aspects of the narrative about the content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Russia: well-described, less-described and improperly-described.

Above all, there are very small described compared to the activities. This is, of course, is not only the fault of the textbook authors, because by far had not done enough research on this topic.

In order to describe the accurate and correct historical facts in the in the highschool textbooks 『Korean History』, first and foremost will be preceded by in-depth research on the subject of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the textbook authors must be fully aware of researchs on the subject, then shall describe the textbooks. If done, I think students would be able to understand historical facts exactly and furthermore instill a proper sense of history.

주제어(Key Words)

고등학교 한국사, 역사교과서,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 연해주의회,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 무장투쟁

Higschool textbook 『Korean History』,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Russia, Ŭbyoung in Maritime Province, National movement in the 1910s, 3·1 movement, Korea National Assembly, coalition movement of provisional governments, armed struggles

논문투고일: 2013년 3월 29일

심사완료일: 2013년 4월 9일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30일